

웃둥 보살 빛둥 거사 <50>

구성 : 김흥민



오지 병을 구경하다가 보물을 놓친 사람 <백유경(百喻經)>

두 사람이 응기 공장에 가서 바퀴를 밟아 오지 병을 만드는 것을 구경했다. 병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곳을 떠나 큰 모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보물까지 얻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지 병 만드는 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경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오." 머뭇거리며 헤가 지도록 구경하다가 옷과 밥을 놓치고 말았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살림살이를 돌보느라고 죽음이 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업을 짓는다.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서 우레 같은 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고 바른 가르침이 걸림 없이 내리건만 세상 일에 얽혀서 듣지 않으며 죽음이 갑자기 닥치는 것도 모른다. 부처님의 법화를 놓치고 법의 보배를 얻지 못하여 언제나 곤궁한 나쁜 길에 살면서 바른 법을 배반해 버리는구나. 그는 오지 병만 바라보며 섬겼기 때문에 마침내 구경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그는 법의 이익을 잃고 영원히 해탈할 기약이 없다.



옛 판화의 세계

하늘의 군사가 나라를 지키다 천병호국(天兵護國)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 불공(不空)이 황제의 명으로 밀교법회를 열자 외적을 물리칠 하늘의 군사들이 나타나는 신통력을 판각한 작품이다. 불공 스님(705-774)은 본래 북 천축 바라문족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숙부를 따라 남양을 유람했다. 15세 때 금강지 삼장(金剛智三藏)의 제자가 돼, 720년 스승을 따라 중국에 왔다. 724년 광복사 제단에서 유부율(有部律)을 받고, 그 뒤부터 금강지 삼장을 모시고 역경에 조력하고, 밀학을 뒤야 양부(兩部)의 대법과 밀교의 깊은 뜻을 계승해 진언종의 6조가 됐다. 스승이 죽은 뒤에 스승의 뜻을 이어 <금강정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의 하룻길을 거쳐 사자국의 불아사에 있으면서 보현 아사라에게 밀교의 대법을 전해 받았다. 본문을 살펴 보면 "천보원년 서쪽 국경지대의 대월지국·석록·강가 등 세 나라 군병들이 사령부를 포위하자 황제는 조서를 내려 불공 스님을 내전에 들게 하고 황제가 도랑에 일어났다. 이때 불공 스님은 향로 위에 올라타고 <인왕반야경>의 밀어를 열네 번 외었다. 황제가 보니 500명 가량의 신병이 공전의 뜰에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황제가 놀라서 그 사유를 물으니 불공 스님이 말했다. '비사문천왕의 아들이 군병을 거느리고 가서 안서지방을 구하려는 것이니 급히 음식을 마련해 이들을 출발시켜 그곳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그 후 4월 20일에 이르러 안서에서 상주했다. '2월 11일에 성의 동북쪽 30리 가량 되는 곳에 구름과 안개사이에 신병들이 나타나 길게 진을 치고 북과 나팔소리가 시

끄럽게 울리니 산과 땅이 무너지고 진동해 국경지대의 오랑캐 부족들이 놀라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그들 병영의 전투 안에서는 금빛쥐들이 나타나 그들의 활과 석노의 줄을 물어뜯어 활줄이 모두 끊어졌으며, 성의 북문의 다락 위에는 천왕이 나타나 성난 얼굴로 오랑캐 군사들을 노려보니 군사들이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황제는 상소문을 보고 불공 스님에게 사배하고, 곧바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성루 위에 천왕상을 안치하게 했는데, 성루에 천왕상을 안치하는 관습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밀교 조사들이 신통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호국 호법하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화해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새로운 포교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섣학 스님(명주사 교관박관장)

시가 있는 도량

우아하고 기품 있는 고고한 자태
만리향(萬里香) 무지개로 뿜어내는
만민의 연인

예리함과 부드러움으로
온전히 모든 사람 마음을 심지되어
핵을 이루나니
문자향(文字香) 서권기를 가슴에 안고
서러운 바람 불어와도 하늘가

묵란

보조개 미소 띄운다

고해(苦海) 설움 이슬 맺히는 사람됨
운기로 덮어 턱으로 보듬어 주는
마음의 등대
오 그대!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도 영원히 피어나는
한 점의 묵란이여!

-김양남 작

운달 돈 해에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액운을 소멸시켜주는 금동반야심경

금동반야심경을 소장하시면...
황금색은 재앙을 막아주고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정에 금송아지나 금두꺼비를 소장하는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금동 반야심경은 사람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은 물론 모든 액운을 소멸시켜 주며, 특히 대반야경의 정수만을 가려 낸 경전으로 대학입시 자녀를 둔 가정, 사업번창을 기원하시는 가정, 집안에 삼재가 있으니 불자님 가정에 꼭 필요한 소장품입니다.

- 크기 : 27.5cm×11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170,000원
- 사찰단위 단체주문 환영
- 공로패, 감사패 대응으로 좋습니다.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
금동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장하시면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무량삼매와 변제(辨才)이치를 분명하게 판단하여 분별하는 재주를 얻으며, 모든 구하는 바를 얻게 되고, 여자가 남자로서 나기를 원한다면 남자로서 태어나고, 일체 중죄와 삼보를 훼손한 죄도 소멸된다.

- 크기 : 지름 10cm
- 재질 : 24K 순금도금
- 보급특가 : 90,000원



생전예수재의 공덕 (법공양판)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광, 예수재의 의식, 재승을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요약해서 수록하여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부 이상 표지에 사할명을 넣어드립니다.

- 사륙배판, 80페이지
- 정가 2,500원



생전예수재 용품

내용물 :
함원소 · 금강경 · 만공 · 금강경찬
칠마 · 천수다라니 · 돈다라니
소다라니 · 탐다라니 · 개팔천
수생경 · 지전



예수재 행사 장엄등

※ 일반 행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음보살본문품 90페이지 3,0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예) 110페이지 3,5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핸드백에 쏘~옥 들어가는! 법공양으로 좋은 한장본 불서



◆ 크기 : 10cm×17.7cm

- 관음보살본문품 90페이지 3,000원
- 예불독송경 89페이지 3,0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3,0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3,0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3,0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3,000원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3,5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3,5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3,500원
- 천수 · 반야심경 100페이지 3,500원
- 천수 · 관음경 110페이지 3,5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예) 110페이지 3,500원
- 천수 · 금강경 166페이지 4,000원
- 금강 · 아미타경 162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본원경(상) 163페이지 4,000원
- 지장보살본원경(하) 175페이지 4,000원
- 지장참회예문 186페이지 4,000원
- 관음참회예문 190페이지 4,000원

전권(18권)을 구입하시면 20% 할인해 드립니다. (63,000원 - 50,000원)